

우리는 2013 년 11 월 열린 GSEF 2013 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지역과 도시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새로운 사회혁신의 시도와 그 성과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지금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제위기, 환경문제, 지역사회의 붕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개별 도시,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며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간에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 동의하였습니다.

올해 창립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전 세계의 도시정부와 민간조직들을 서로 연결할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연대는 세계를 변화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시민과 기업, 민간과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를 모토로 정책토론회, 정책박람회 등 시민의 정책참여의 장을 넓혔고 공유된 정보는 새로운 공공정책으로 창출됨은 물론 민간기업의 마케팅과 연구자료로 활용되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사회적경제의 힘은 이미 서울의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협동의 힘으로 소외된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GSEF 는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모으는 장이 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와 기관은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세계 시민의 의식과 실천 가운데로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차원의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